

직무수행계획서

응시자 배운수

2023. 12. 02.

☐☐ 목 차 ☐☐

I. 2020년~23년 문화정책 동향	1
II. 민선 8기 주요공약사업 현황분석	2
III. 주요업무 직무수행계획	3

I. 2020년~23년 문화정책 동향

엔데믹 시대의 문화정책 동향분석

- 엔데믹 시대 도래 후 보편적 문화복지와 여가문화 확대_ 사회적 돌봄, 공존, 공생
- 지난 2020년부터 3년여 동안 계속된 팬데믹 상황속에서 시작된 <한국판 그린 뉴딜>은 ‘디지털 뉴딜’ 과 ‘그린 뉴딜’ 로 나눌 수 있음.
- 현재 엔데믹 국면을 맞이하였지만 앞에서 언급한 ‘디지털 뉴딜’ 과 ‘그린 뉴딜’ 은 다양한 문화·예술 사업영역에도 많은 영향을 주었으며, 현재는 잠시 주춤한 메타버스 (Meta-Verse) 시대가 본격적으로 도래할 경우, 다음과 같은 문화·예술·교육 영역에서 아래와 같은 트렌드를 이끌어 나갈 것으로 판단됨.
 - ① **디지털 뉴딜 부문** : 테이터 댐 - 학습 및 다양한 콘텐츠 데이터를 알고리즘에 기반한 수집, 가공 사업 기반으로 디지털 환경에 적응하도록 ‘사람에 대한 투자 확대(평생학습 교육, 예술교육, 어르신 인지감수성 향상과 치매예방 교육 등)’
 - ➔ ‘뉴-노멀 시대’의 보편적 교육기회제공(생애주기별, 생애전환기별 교육 시행 가능)
 - ② **그린 뉴딜 부문** : C-19 이후, 사회적 약자에 대한 ‘돌봄’ 과 ‘공존’, ‘공유(인지 감수성)’ 를 통해 상호간의 차이와 격차 해소를 위한 ‘고용·사회 안전망 강화’ 필요성 대두
 - ➔ 생활문화환경 변화에 따른 ‘新문화공동체’ 형성과 돌봄가치 제고
- 2018년 5월 자율성, 창의성, 다양성 사업과 ‘사람 중심’의 문화정책 필요성을 제시한 <문화비전2030>과 2019년 12월 <제2차지역문화진흥기본계획>에서 제시한 ‘내가 만들고’, ‘모두가 누리며’, ‘사회를 혁신’ 하는 지역문화 분권과 자치 중요성이 각 지자체 마다 지속 가능한 성장 동력으로 인식되기 시작함.
 - ➔ 제5기를 맞이하는 대한민국문화도시 사업과 범정부 차원의 문화정책에서 기초지자체 스스로 도시 ‘문화정체성’ 회복과 ‘사회적 결핍’ 을 보듬고 치유하는 지방시대 문화를 강조하고 있음.
 - ➔ 따라서 ‘문화’가 단순히 국민의 여가문화나 예술향유 - 생활문화 포함 - 만이 아닌 삶의 공존과 공유 속에서 창작예술인·생활문화인 모두 소외됨 없이 포용하는 지방문화 특성화 요소 발굴이 문화정책 방향임.

2024년 문체부 문화정책기조인 K-컬처 콘텐츠 활용사업 확장과 지방시대 도래에 따른 제3기(2024~28년)지역문화진흥법 추진에 따른 부평구 문화·예술·관광 로드맵을 위한 “부평구중장기문화정책연구” 필요

II. 민선 8기 주요 공약사업 현황분석

□ 민선 8기 문화·관광부문 주요 공약사업

No.	주요 공약 내용	관리번호	담당부서	사업부문
1	문화도시 사업을 통한 지역 예술인 지원 확대	5-2	문화관광과	S/W
2	미디어 창작공간 무료운영	5-3	문화관광과	Hm/w·S/W
3	365일 비대면 도서대출 시스템 u-도서관 설치	5-6	문화관광과	S/W
4	다문화를 담은 구립도서관 운영 확대와 장서 확충	5-7	문화관광과	S/W
5	청소년 복합문화센터 건립	5-8	평생교육과	H/W,S/W

※ 부평구청 홈페이지 <민선 8기 공약사항 추진계획> 내용 참조_2023. 12. 01. 현재.

- 민선 8기 문화(예술·관광 포함)부문 공약 내용을 살펴보았을 때, 공약 사업추진 내용은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음.
- 첫째, 가장 최우선 공약 이행과제는 문화도시 조성사업을 중심으로 한 지역 예술인의 창작활동 촉진을 위한 문화복지의 실현으로 ①지역 예술인 지원확대, ②문화도시센터에 조성된 미디어 창작 공간 활성화를 통해 보다 많은 창작예술인을 포용, 배려하는 문화정책 기조를 갖고 있음. 둘째, 헌법에 명시되어 있듯이 국민의 ‘문화권’을 확산시키기 위한 문화 인프라 구축사업으로 ③엔데믹 상황이 도래한 만큼 국민 누구나 ‘시민 문화력’ 제고를 위한 비대면 도서대출 시스템 u-도서관 설치, ④구립 도서관 기능을 강화로 다문화(이주민) 관련 장서 확충을 통해 문화다양성 가치 확산과 다름을 인정하는 포용과 배려의 문화 가치 확산을 꾀하고 있으며, 셋째, 미래세대인 청소년들이 각양 각색의 개성을 갖고 있는 만큼 그들이 희망을 꿈꿀 수 있는 ⑤복합문화공간조성으로 다채롭고 다양한 문화·예술을 체험하고 경험하며 또래 미래세대 만이 누릴 수 있는 커뮤니티 공간인 ‘누림터’ 조성으로 미래 문화시민으로 육성코자 하는 의지를 엿볼 수 있음.
-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민선 8기 공약사항을 살펴볼 때, 他지자체 문화정책 및 공약 내용의 50% 이상이 문화기반조성사업(하드웨어) 보편적인데 반해 민선 8기 공약은 국민의 ‘문화기본권’에 중점을 둔 휴먼웨어, 소프트웨어 사업 중심으로 문화 시민역량을 자연스럽게 배가(倍加)시키는 균형감 있는 공약사항임을 이해할 수 있음. 중장기 관점에서 균형감 있게 계획, 편성되어 있음. 한 가지 약점이 있다면 국민의 일상 속 생활문화 커뮤니티 활성화 촉진을 위한 부평형 문화정책 수립이 필요하다 판단됨.

Ⅲ. 주요업무 직무수행계획_ 부평문화재단 직무수행 시, 3대 목표

- 민간8기 공약사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부평형 지역문화진흥정책 적극 수용,추진
 - 민선 8기 문화부문 공약 모토인 “일상에 여유를 더 하는 부평” 이 지속 가능할 수 있도록 부평 구민 대상으로 문화정책 의제를 담아내기 위해 재단 내 문화행정지원 업무 외에 정주민·이주민 대상으로 한 정례적인 문화정책의제 콜로키움과 오픈 테이블 개최
 - 지역문화진흥법에 의거한 부평구 중장기 문화정책수립계획을 바탕으로 재단 사업 역시 <사업계획 수립-사업실행-평가-개선점 도출-정책의제발굴-환류>체계 마련으로 지속 가능한 문화도시 조성사업이 연계·추진 가능하도록 신속·정확·투명한 행정지원 체계 구축과 시너지 창출 위한 관내의 문화예술 유관기관과 업무협약 체결과 협력, 교류사업 추진

- 문화적 도시재생으로 “일상에 여유를 더 하는 부평” 문화사업 적극 추진
 - C19 이후, 문화기본법에 명시된 ‘문화권文化權’ 이 기존 향유 관점에서 문화를 통한 ‘사회적 돌봄’ 과 ‘사회 혁신(문화적 도시재생 등)’ 이라는 사회문제해결 기제(機制)로 전환되고 있음. 따라서, C19 장기화 인해 빚어진 코로나 블루 증상에서 오는 외로움과 고독감, 상대적 결핍과 증후군 등을 겪고 있는 부평구민이 생활문화 속에서 치유되고 일상의 문화를 회복할 수 있는 다양한 문화참여가 가능한 문화사업과 문화도시 조성사업 안에 놓인 예술축제사업 고도화 추진

- 전문문화예술경영기관 위상에 걸맞는 문화정책 기능강화 및 책임경영 체제도입
 - 문화사업 일반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임직원 대상 교육의 내실과 이해를 돕는 외부 전문가 멘토 시스템 도입으로 시의성(時議性)과 균형감을 갖춘 기초문화재단으로서 전문성 강화
 - 그동안 전문문화예술경영기구로서 살펴보지 못했던 對시민 사회적 돌봄과 윤리관, 양성평등, 청렴성과 인권 의식 등을 바탕에 둔 재단 임직원의 소명 의식과 기본적 덕목을 갖추기 위한 직업윤리교육 강화와 직원복무(인사·노무·계약·계약이행절차 등)에 있어 책임경영체제 도입
 - 문화예술경영에 있어서 조직 내 구성원 간 업무 쏠림이나 상대적 결핍, 불균형이 발생되지 않도록 재단 임직원의 전문 역량강화를 위한 내외부 교육의 정례화 및 부평형(型) 지역문화중장기발전계획에 근거한 경영지표와 개선이 필요한 내부규정 개정으로 균형감 있는 전문문화예술단체로서 위상 확립.
 - 임직원의 전문역량강화를 위해 초임직원 대상으로 정례적이고 지속적인 교육과 이해를 돕는 감사(교육)팀 및 조직 내 위계에 따른 갑질문화 개선과 젠더(ZENDER)감수성 결핍에 따른 성희롱, 성폭력 예방 등을 위한 고충처리전담위원회 신설 추진.